

고전하는 '자가포일 주유소'

과당경쟁·정유사 횡포로 기름 수급 어려워 광주·전남 68곳중 협회가입 단 1곳도 없어

광주·전남의 '자가포일(무풀) 주유소'들이 다시 '풀사인(정유사 간판)을 요청할 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의 지원 아래 '자가포일(무풀) 주유소'들이 협의회를 구성, 올 가을부터 공동 브랜드로 '싼' 기름을 판매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들의 영업난 해소도 도움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주유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총 1284곳(광주 331·전남 953)의 주유소 중 농협과 NC오일(남해화학)을 제외한 자가포일 주유소는 광주 16곳, 전남 52곳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40곳의 자가포일 주유소 중 20%가 분포돼 있다.

그러나 실제 광주·전남의 자가포일 주유소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난 한계와 4대 정유사들의 횡포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주유소가 유난히 많은 광주·전남은 자가포일과 풀사인 주유소의 경쟁이 심해 주유소 간 기름값 차이가 크지 않다. 정유사들로부터 기름 수급이 여의치 않은 것도 자가포일 주유소들을 괴롭히고 있다. 4대 정유사들은 자사 기름을 갖춘 주유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가포일 주유소들이 안정적인 기름 공급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 자가포일 주유소들은 일반 주유소처럼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없어 실질적으로 가격이 크게 싸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가포일 주유소들은 반납했던 풀사인을 다시 달기 위해 오히려 주유소 협회 측에 도움을 청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창설된 '자가포일주유소협회'(합재덕 회장)는 국내 주유소 시장은 경쟁 구조가 형성

되지 않아 4대 정유사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해 왔다며 안정된 기름공급과 정부의 품질인증 등 지원 아래 정부가 추진중인 '알뜰 주유소'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광주·전남에서는 자가포일 주유소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자가포일주유소협회'에 가입한 광주·전남지역 자가포일 주유소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국주유협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론칭과 안정된 기름공급을 위해서는 유통주장자 시설 등 막대한 사업비가 필수적"이라며 "낮은 마진 때문에 지역 자가포일 주유소들의 폐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가포일주유소협회가 어떤 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낼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자가포일 주유소=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4대 브랜드 정유회사의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해 독자적인 상표를 내걸고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다



"정육케이스 생필품으로 바꿔 가세요" 1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한 고객이 지난 추석연휴 받았던 선물세트에서 포장용기로 쓰인 보냉케이스를 반납하고 티슈를 증정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5일까지 정육 보냉케이스를 매장으로 가져오면 생필품을 증정하는 '케이스 회수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연체자 18만명 급증...내년 '대란' 오나

경기둔화 직격탄 19.5% 증가...대출 억제로 더 늘 듯

올해 들어 금융권 연체자가 2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아졌고, 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대출자들이 경기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억제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연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연체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개인·기업 연체 모두 급증세 = 18일 금융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1만9570명이던 금융기관 연체자 수는 올해 6월 109만8878명으로 반년 새 무려 17만 9408명(19.5%)이나 늘었다. 이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후 연체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던 추세가 처음으로 반전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8년 말 121만4731명에 달했던 연체자 수는 2009년 말 103만2630명으로 일년 새 17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13만명 가량 또 줄어 들었다. 일부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위기 후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3월 말 0.6%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지난해 말 0.47%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급격하게 높아져 7월 말 연체율이 무려 0.77%에 달한다. 빚을 못 갚는 개인고객뿐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신용보증기금이 빚을 갚지 못한 기업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 비율(대위 변제율)은 올해 8월 말 전체 보증금 대비 3.6%까지 높아졌다. 6월 말에는 4.0%까지 치솟았었다.

◇대출 억제·경기둔화로 연체율 더 높아진다 = 가계와 기업이 금융위기 후 최악의 신용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확장책이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자는 이자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정부는 재정집행을 확대해 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이도록 힘썼다. 그런데 이 확장책이 더 이상 먹혀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한은에 따르면 2009년 말 738조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6월 말 현재 826조원으로 1년만 새 무려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 이상 공격적인 경기확장책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화순지역 소상공인 대출

광주은행은 화순지역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대출 지원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중 화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로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정도로 물가가 급증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다. 정부가 더 이상 재정적자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에 나섰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돼 결국 연체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8년 말 연 7.5%였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009년 말 5.86%, 지난해 말 5.7%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7월 말에는 6.08%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직결된다.

한은에 따르면 2009년 말 738조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6월 말 현재 826조원으로 1년만 새 무려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 이상 공격적인 경기확장책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연합뉴스

으로 연 3.0%의 이자를 감면 받는 대출이며,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등은 업체의 신용도와 담보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 업체 등은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겠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7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금융당국 구조조정 일단락 미공개 부실 6곳 불안 여전

정부가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을 추가로 정지함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오늘 발표한 조치로 금년 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단기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도 없을 것이라 정부 방침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두 도려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요인이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올해 들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수는 16개에 달한다. 특히 올해 정부가 문을 닫도록 한 저축은행의 상당수는 업계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대형 업체였다.

부동의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이날 영업이 정지된 토

마토와 제일저축은행은 자산 2조 원 이상이었고, 프라이미과 제일2, 에이스, 삼화저축은행 등은 자산이 1조원을 넘는 곳이었다.

급격한 몸집 불리기로 문제가 됐던 대형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셈이다.

이번에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7주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경영진단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긴 것으로 공인을 받은 곳이란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믿음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뱅크런(대량인출사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는 것.

특히 금융위가 이날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 내린 것과 별개로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한 또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반등무드 1900선 기대...IT·자동차 주목

국내증시가 불안한 대내외 변수 속에서도 주 후반 강한 반전에 성공했다. 막다른 길로 치닫던 유럽사태가 일부 개선의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 등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던 상황에서 유럽 외 글로벌 정책공조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통화스와프 확대, 다자간 협력 강화, 은행 자본확충 등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사태의 경우 일단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글로벌 정책 공조의 명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으며 세계 각국들도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안정 문제가 금융기관들의 위동성 부족 우려로 이어지면서 불거진 신용위기의 파장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행보로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FRB, 영국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스웨덴 스웨덴은행(SNB)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공조해 유럽 은행권에 연방까지 무제한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유로존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

난 주말의 EU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G20 재무장관회의(22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23~25일)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럽은행들의 자본확충 방안 등이 유동적이라는 개선 징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시각도 미약하나마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축했던 투자심리 역시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도 반등무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의 추가 완화와 미국경기회복에 대한 시각변화 여부에 따라 최근 박스권 상단인 1900선 돌파 및 안착 시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업종별로 최악의 업황 통과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IT업종과 견조한 실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종, 수익개선이 기대되는 철강과 보험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www.cdu.ac.kr

초당대학교

2012년 3월

일반대학 전환 설립

글로벌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

초당대학교는 특성화된 학과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모범이 될 초당대학교에서 더 큰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2012년
항공운항계열 신설
항공운항학과/항공정비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아동청소년상담학과

2011년
대한민국참교육대상 수상
취업률 광주, 전남 2위, 전국 16위(1,000~2,000명 대학)

초당대학교가 사회가 원하는 참된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수시 1차 원서접수 2011. 9. 8(목) ~ 9. 20(화)

534-70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1577-2859 FAX. 061. 453. 4567